

June 26, 2019

Africa

가나정부, GMO 규제를 위한 새로운 법안의 승인 요청

가나정부는 자국 내 GM식품의 규제를 촉진할 새로운 법안을 검토 중이다.

입법 도구인 바이오안전성(생명공학 관리) 규정 2019가 의회에 상정되어 현재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이는 가나 시장에 GMO의 도입을 허용하는 국가 바이오안전성법 2011(National Biosafety Act 2011)을 운영하도록 하며 국가 바이오안전성청(National Biosafety Authority)의 기능을 설정한다. 이 문서는 또한 정부가 적용 절차, 수출입 허가 획득, GM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모니터링 및 시행, GMO에 대한 공교육 등의 규제 절차를 지원할 위원회를 명시하고 있다.

가나의 환경과학기술혁신부 장관인 Kwabena Frimpong Boateng 박사는 바이오안전성 규정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275명의 의원들에게 이 법안 승인을 호소했다.

Boateng 박사는 의회에 보낸 제안서에서 새로운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가의 식량 수요를 해결하는데 큰 잠재력을 가진 GMO가 농업 생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칭찬했다. "이 법안은 GMO의 개발, 이전, 취급 및 사용에 있어서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생명공학을 규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가나에서 GMO를 검토하고 결정하는데 있어서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프로세스를 확립한다"고 Boateng 박사가 말했다. 그는 또한 현대 생명공학기술은 내건성 식용 작물과 생물비료를 개발하는데 활용될 수 있고, 영양가를 향상시키고 식품의 저장 수명을 연장하고, 농지에서의 기계 사용을 줄여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Ghana Web](#)

Americas

아르헨티나, 다섯 번째 GM면화 형질 승인

아르헨티나 농업산업부 장관인 Luis Miguel Etechevehere와 BASF의 글로벌면화 대표인 Christian Monty는 제초제와 해충저항성을 제공하는 면화를 위한 새로운 GMO형질의 출시를 발표했다.

이번 새로운 출시는 아르헨티나에서 BT(1998), 라운드업레디(2001), 글라이포세이트와 글루포시네이트(2009), 그리고 글라이포세이트와 HPPD 억제제(2019)에 이어 면화에 대해 승인된 5번째 형질이다. 이는 GlyTol TwinLink Plus라는 상품명 가진 이전 형질들의 후대교배종을 기반으로 BASF에 의해 상용화 될 예정이다.

아르헨티나의 BASF의 CEO인 Gustavo Portis는 농민들이 희소한 천연자원에 영향을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생산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기술이 아르헨티나의 차코(Chaco)와 산티아고 델 에스테로(Santiago del Estero) 지방의 면화 재배 농민들이 고품질의 면화를 재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AgroPages](#)

Americas

갈변되지 않는 greenvenus™로메인 상추 미국에서 상업적 시행 진출

인트렉스 사(Intrexon Corporation)는 그들의 갈변되지 않는 GreenVenus™로메인(Romain) 상추가 상업적 시행으로 진출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상업용 실내 생산품의 데이터에 따르면, GreenVenus™는 최대 2주의 저장 수명을 가지며 끝마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GreenVenus™는 미농무부(USDA)에 의해 평가되었으며, 이것은 유전공학기술을 통해 변형되거나 생산된 식물에 대한 연방규정 7CFR Part 340에 의거한 규제대상이 아니다. GreenVenus™는 또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데도 도움이 된다.

인트렉스 사의 농업생명공학 사업부의 Sekhar Boddupalli 대표는 "우리는 2년 이내에 개념에서 상업화 시행에 이르기까지 향상된 시장성이 높은 수확량과 저장 수명을 가진 GreenVenus™상추를 빠르게 발전시킬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매년 33억 달러 상당의 상추가 쓰레기로 손실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중 절반은 로메인이다. GreenVenus™갈변되지 않는 상추는 생산, 가공, 배송 및 보관에 있어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ntrexon](#)

Asia and the Pacific

GM옥수수의 가치평가지험은 생명공학의 혜택을 보여줘

크롭라이프 파키스탄(CropLife Pakistan)은 유전자변형(GM) 옥수수 종자 기술에 대한 가치평가 시험을 실시하여 생명공학의 혜택을 제시하고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시험 재배지에서 GM 옥수수 교잡종의 우수성을 직접 관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행사는 자급 농업 방식에서 기술적으로 진보된 상업적 농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파키스탄에서의 GM옥수수 재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크롭라이프 파키스탄 생명공학 종자 위원회(CropLife Pakistan Biotech and Seed Committee)의 Muhammad Asim 위원장은 언론에 파키스탄을 위해 생명공학 도입의 중요성에 대해 간략히 설명했다. 국가균일수확시험부(National Uniform Yield Trial, NUYT)의 파키스탄농업연구위원회(PARC)는 전통적인 교잡종에 대한 생명공학 교잡종의 경우 수확량 우위가 10%에서 45% 사이라고 보고했다. 전 세계적으로 생명공학작물을 도입한 국가들은 평균 수확량이 증가하였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경험했다. 예를 들어 미국은 평균 수확량을 56% 향상시켰고 브라질과 필리핀의 옥수수의 평균 수확량도 각각 102%와 72% 증가했다.

Muhammad Asim 위원장은 "생명공학기술은 농민들이 투입 비용을 줄이고 생산량을 늘려 수익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상적인 도구"라고 언급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BIO SmartBrief](#) and [The News International](#)

Europe

2019 유로바로미터, 대부분의 유럽인들은 GMO에 대해 거의 신경 쓰지 않아

식품안전성에 대한 유로바로미터(Eurobarometer)의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유럽인들은 GMO(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해 거의 신경 쓰지 않는다고 밝혔다. 설문 조사에 따르면 조사 목록에 명시된 15가지 우려 사항들 중 8번 항목이었던 '식품과 음료내에서 유전자 변형 성분'에 대해 유럽인들의 우려는 상대적으로 낮았으며(27%), 유로바로미터 특별보고서(Special Eurobarometer)는 식품안전성에 대한 유럽인들의 전반적인 관심에 대한 통찰력을 얻기 위해 유럽식품안전청(EFSA)으로 부터 의뢰받았다.

설문 조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실제로 대부분의 유럽인들은 GMO에 관심을 거의 갖지 않으며 심지어 GMO와 관련된 주제들의 목록을 제시하더라도 27%만이 GMO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회원국의 1/4에 불과하며, 이러한 수준은 1/3을 넘는다. "유럽인의 90%가 GMO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꾸준히 축진되는 이야기들은 가짜로 드러났다.

- GMO에 대한 우려는 9년 만에 절반 이상 감소했다. 보고된 우려의 수준도 2010년 66%에서 2019년 27%로 크게 감소했다. 28개 회원국 각각에서 매우 현저한 감소를 보였고, 이 중 9개국에서 3배 이상 감소했다.

- 유전자교정은 설문 조사에서 가장 적은 우려를 보였다. 설문 조사 15개 주제 중 유전자교정은 사람들이 가장 우려가 적었던 주제(4%)이며, 또한 사람들이 가장 잘 모르는 주제(22%)이기도 하다.

- 이 설문조사는 또한 과학자들이 유럽에서 가장 높은 신뢰도(82%)를 얻고 있음을 보여준다. EU의 광범위한 조사는 2019년 4월에 EU의 28개 회원국에서 조사 전문기관인 칸타 네트워크(Kantar Network)를 통해 실시되었으며 서로 다른 사회 및 인구통계 그룹의 27,665명의 응답자들이 모국어로 집에서 직접 면담을 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GMOinfo.eu / EFSA